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Associated
Schools

Guide
for the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유네스코 협동학교 길잡이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Guide
for the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유네스코 협동학교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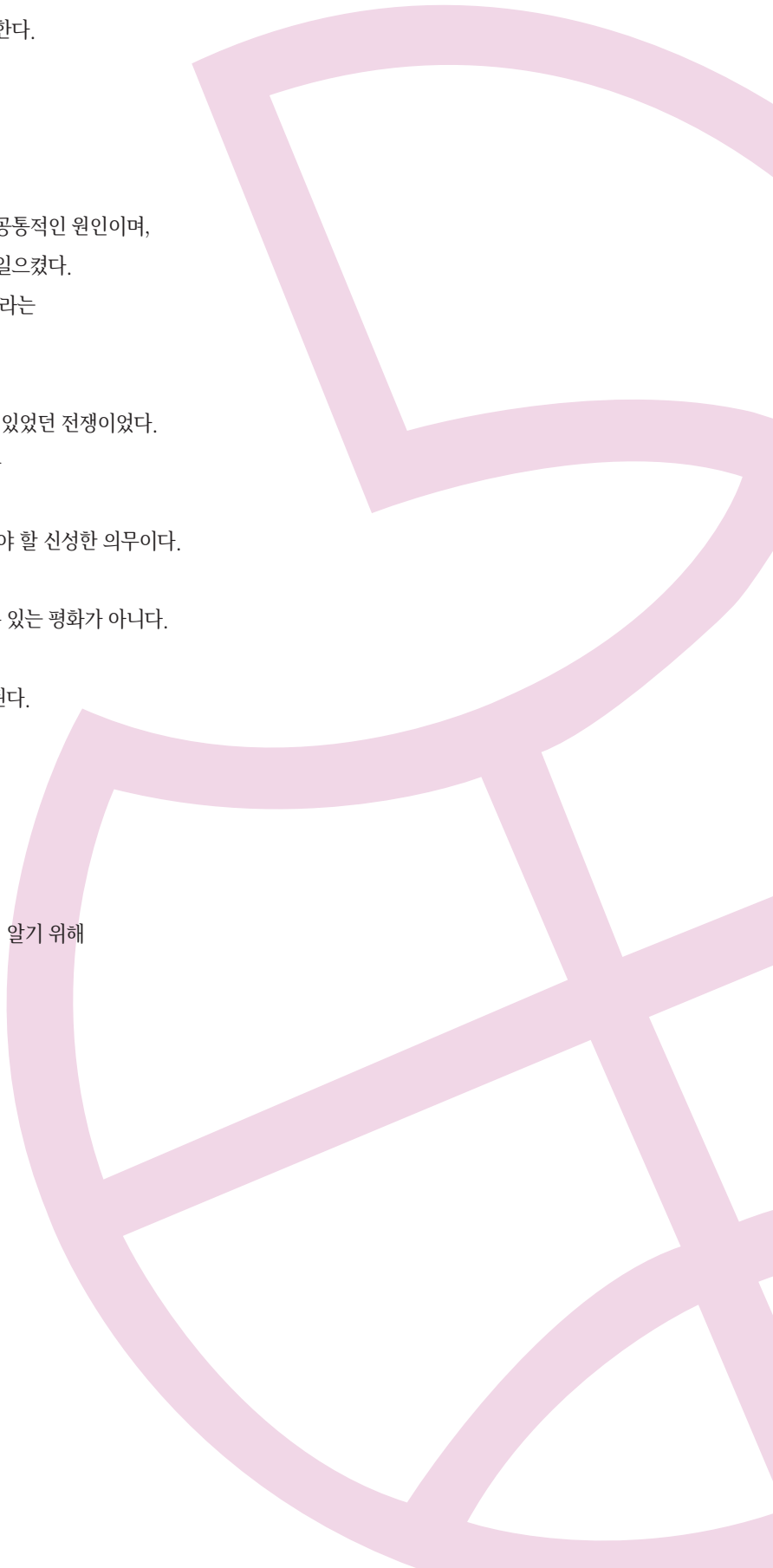
유네스코 헌장 (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해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 때문에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부인하고,
이러한 원리 대신에 무지와 편견을 통해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고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지고
객관적 진리가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며
사상과 지식이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소통수단을 발전시키고 증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완전하게 알기 위해
이 소통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그 결과 당사국은
국민들의 교육·과학·문화상의 관계를 통해,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그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인류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여기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를 창설한다.

1945년 11월 6일



목 차

I. 유네스코협동학교	4
유네스코협동학교 목표	4
유네스코협동학교 로고	5
유네스코협동학교의 역할	6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	6
유네스코협동학교 참여 방법 및 의무	7
II.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협동학교	8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협동학교의 관계도	9
유네스코협동학교 참여 시 지원사항	10
유네스코협동학교 가입	10
유네스코협동학교 선발 시 고려사항	11
III. 유네스코협동학교의 배경	12
유엔새천년개발목표	12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13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13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10년	13
IV. 학습주제 및 기함 프로젝트	14
범지구적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14
지속가능발전 교육	17
평화와 인권	19
문화 간 학습	21
기함 프로젝트	22
V. 국가조정관의 역할	24
국가조정관의 역할	24
국가조정관의 역할 명시	24
VI. 협동학교 협력 기관	26
정부,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26
협동학교의 교장	26
VII. 수업 참고 자료	27
유네스코협동학교 관련 저서 모음	27
참고 웹사이트	27
부록 1. 2012년도 유네스코협동학교 가입학교 현황	29
부록 2.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국제상	30
부록 3. 세계 기념일	31
부록 4. 지속가능발전교육 놀이	33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귀교의
유네스코협동학교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의 담당 교사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전 세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어 온 운동에 참여
하고 계십니다. 유네스코협동학교는
2013년, 그 6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5년에서 2014년은 유엔이
지정한 지속발전가능교육 10년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SD)입니다. 유네스코협동
학교에서 추구하는 기본 학습주제
(범지구적인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지속가능발전교육, 인권과 평화, 문화 간
학습)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학생들의
환경, 관심사와 포부에 적합한 수업으로
유네스코협동학교의 질과 위상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팀



2010 서울경기강원지역 빈곤퇴치 캠페인



I. 유네스코협동학교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참화를 겪은 인류는 항구적인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물리적인 힘이 아닌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에 기초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에 유네스코는 보다 기초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고자 유네스코협동학교를 구상하게 되었다.

유네스코협동학교는 학교 교육을 통한 국제협력 및 평화의 문화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기본목표 달성을 위하여 1953년 11월에 탄생하였다. 유네스코협동학교는 유엔과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네트워크로서 현재 전 세계 180개국 9천여 개의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양성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시범 및 실험적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 4개 중·고등학교가 유네스코협동학교에 가입하면서 국내활동을 시작하였고, 2012년 현재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30개교, 고등학교 7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대학교 4개교 등 총 134개교가 유네스코협동학교로 활동하고 있다.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유네스코협동학교 목표

유네스코협동학교는 유네스코 이념에 기반한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IU) 및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을 전파하기 위해 실험적 연구와 특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새로운 교수방법과 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을 증진·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etwork: ASPnet)

이를 위해 협동학교는 유네스코의 이념을 중심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범위의 학습주제를 기초로 활동하고 있다.

1. 범지구적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World Concerns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2.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3. 평화와 인권
(Peace and Human Rights)
4. 문화 간 학습
(Intercultural Learning)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 사진〉



End Poverty 희망 앨범 캠페인



ASPnet 아태지역 교류회



지역 문화재 탐방: 부산 석빙고



지속가능발전교육활동: 서울사대부여중 지역사회 정원 가꾸기

유네스코협동학교 로고

2007년 새롭게 바뀐 ASPnet 로고는 협동학교의 중요한 상징들을 단순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각 상징물들은 교육을 의미하는 펼쳐진 책, 평화를 의미하는 비둘기 날개, 그리고 문화 간 소통을 의미하는 지구를 뜻한다.

※ ASPnet의 로고는 항상 유네스코 로고와 함께 써야 한다.



UNESCO
Associated
Schools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유엔 전문기구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 헌장은 1945년에 제정되었고 1946년 11월 4일 20개 회원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유네스코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 성별, 언어, 지역 차별 없이 정의와 법,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현재 195개 회원국, 8개 준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유네스코는 총회(General Conference)와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사무총장(Director-General)이 이끄는 사무국(Secretariat) 총 3개의 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회와 집행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사무국이 이행한다. 2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는 유네스코의 목표와 우선 사항들이 수립되고 예산이 책정된다. 58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집행이사회는 연간 2회 프로그램과 예산을 검토한다.

유네스코는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50개 이상의 지역사무소가 있다. 유네스코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각국의 국가위원회는 유네스코의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단체 및 각 지역 사무처, 정부 부처와 파리의 사무국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기본 목표 중 하나는, 교육을 통해 국제 협력과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1946년 창설 이후, 유네스코와 함께 일하는 교육자들은 국제 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을 위해 많은 새로운 제안을 했고, 이러한 제안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유네스코는 1953년에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협동학교의 우선순위는

- '21세기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알기 위한 교육, 하기 위한 교육, 더불어 사는 교육, 되기 위한 교육' 등 4가지 교육 방향과 유네스코의 이념을 강조하면서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과 다카르 행동 계획 (Dakar Framework for Action)의 목표 3(생활 능력)과 목표 6(양질의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다.
- 또한 유네스코의 우선순위를 중요시 하면서 양질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협동학교의 통합 교육

모든 교과가 다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협동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통합교과적 접근방식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기존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지역·국내 문제를 그 지역 전체, 더 나아가 국제 관련 문제로 확대해 갈 수 있다.

협동학교 사업 초창기에는 평화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이란 역사, 지리, 사회, 언어 (국어, 외국어) 교과 교육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새로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또 그와 더불어 학생들의 세계는 넓어지면서 상호의존과 협동생활에 대해 배우는 것이 교육 과정 상 몇 개의 교과에만 한정될 수 없게 되었다.

한동안 국제이해교육은 부담이 많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 관련 학습 요소들이 정규 교육과정상 모든 교과에 융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있기도 했다. 지금은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과 인식을 고취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서, 대부분의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에게 후자가 보다 바람직한 접근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역시 각 교과 또는 내용영역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육전체의 지향으로 삼아야 하며, 학교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학교 전체 수준의 프로젝트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유네스코협동학교의 역할

협동학교는 개별적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학교'도 '유네스코의 학교'도 아니다. 자국의 교육체제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로서, 유네스코와의 연계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평화,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교육 방법론, 교육 자료의 개선에 기여하는 '실험 학교(pilot schools)'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협동학교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수가 아니라 이들이 성취해낸 활동의 수준과 질이다. 더불어 유네스코협동학교 실험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우수한 교육 자료와 새로운 교수법 등을 협동학교 외 다른 학교와 교육기관에 보급하여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유네스코협동학교 국가조정관들(National Coordinators)과 교사들이 교육 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협동학교로서의 경험이 쌓이면 국가 수준 협동학교 조직의 원활한 기능과 함께 '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s)'*라고 불리는 특정 주제에 대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프로젝트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 14쪽 참고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협동학교는,

- 협동학교의 4가지 학습주제와 관련하여 활동하거나
- 협동학교의 기함 프로젝트에 참가하거나
- 협동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며 유엔과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기념일을 기리거나
- 유네스코와 관계 기관들이 제공하는 교수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2011 서울사대부여중 유네스코 활동



2010 제주지역 빈곤퇴쳐 캠페인

유네스코협동학교 참여 방법 및 의무

- 협동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각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와 접촉한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 가입신청서 작성 시,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표와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하고, 최소 2년 동안은 협동학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후 국내 네트워크에 가입한다.
- 국내 네트워크에 가입 후 협동학교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은 지난 3년간의 활동을 평가하여 유네스코 본부에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한다.
- 가입학교는 매년 초 국가조정관에게 현황조사지를 제출하고, 협동학교 총회에 참가해야 하며, 매년 말에 협동학교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협동학교 교사는 국가조정관에게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협동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나 국가조정관의 방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협동학교 교사는 도덕적 의무, 즉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평화교육 증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
- 협동학교 담당교사들은 가급적 별도의 단일 업무로 협동학교 사업을 담당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 교육 활동에 유네스코 이념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동학교 담당교사가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실험 프로젝트를 계획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당국에서 휴가를 제공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는 학교의 지원하에 담당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2011 유네스코협동학교 총회



2011 일본교직원 한국초빙 프로그램



진례초 도지사수업 방문



공식환영만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역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는 1954년 1월 30일에 설립, 유네스코와 정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네스코 본부 및 회원국들과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 청소년 분야의 정보 교환 및 국내외 협력을 통해 평화와 발전이라는 유네스코 이념과 목표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하기 훨씬 이전인 1950년에 유네스코에 가입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74년에 유네스코의 회원국이 되었다.)



1945년 광복 후, 오랜 일제강점으로 인한 피폐와 해방 직후의 혼란 및 국토 분단으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유네스코의 창설 소식을 접한 각계의 지식인들은 유네스코야말로 그 시기의 한국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 기구라고 판단하여 정부에 유네스코 가입을 적극 건의하였다.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유네스코 가입을 추진하였고, 마침내 1950년 6월 14일 제5차 유네스코 총회(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공산주의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55번째로 유네스코 회원국이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입 열흘 만에 6.25 전쟁이 발발하여 한국의 본격적인 유네스코 활동은 전쟁 후로 미루어졌다.

그러한 와중에도 유네스코 본부는 1950년 8월 29일에 한국에 대한 긴급원조를 결의하여, 전란 속에서도 대한문교서적 인쇄공장 설립, 한국어국어학원 설립, 한국교육재건을 위한 교육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전쟁복구를 도와줌으로써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우리 국민들

II.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

한국은 1961년에 4개의 중·고등학교가 가입하면서 유네스코협동학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5년 후인 1966년에는 13개 학교가 추가되었으며, 1997년에 가입학교 수는 52개 교로 늘어났고, 2012년 현재에는 134개교가 가입하여 활동 중이다. 초기 협동학교 활동의 주요 목적은 다른 나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우리의 교실에 소개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와 함께 우리의 사회와 문화, 환경을 먼저 올바르게 알고 외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협동학교 사업을 통해 수행해 온 국제이해교육 활동은 크게 정규 수업 과정에서의 실천, 특별활동에서의 실천, 국제 교류, 교사 및 학생 연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규 수업 과정을 통한 활동에서는 주로 사회과 관련 과목들을 중심으로 협동학교 사업에 제시된 연구 주제에 대한 탐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별활동을 통한 실천은 협동학교 담당 교사와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게시 교육, 스크랩북 제작 및 전시 활동, 각종 세계기념일 행사 개최, 유관 기관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것이었다. 한편 국제 교류로는 협동학교 간의 자매결연 및 교환 방문, 해외 펜팔, 유네스코 주최 국제 캠프 참가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 및 학생 연수로는 연구협의회 개최, 국제 기구 및 해외 협동학교 견학, 여름캠프 개최 등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2011 인천경기지역 기후정의 캠페인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86년 이후 학교현장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에서의 연구 및 활동 결과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확산하기도 하였으며, 1961년 가입 이후 국내에서의 꾸준한 활동을 인정받아, 1995년 교육부로부터 우리나라의 '국제이해교육센터'로 지정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스코협동학교

유엔은 제57차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DESD, 2005년~ 2014년)'의 일환으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또한 국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데, 협동학교는 이러한 노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 국제이해교육의 중요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하여 국내에서의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것이다.

유네스코협동학교 홈페이지 <http://asp.unesco.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협동학교의 관계도

유네스코협동학교의 활동은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전 세계 협동학교, 정부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각 국가에 국가조정관을 두고 협동학교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나아가 유네스코 본부(국제 조정관 International Coordinator)와의 협력을 지원하며, 각 학교의 학교장 및 교사는 협동학교의 실질적인 활동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 유네스코협동학교는 국내 협동학교 가입 후 3년 이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협동학교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에게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

유엔에 가입하기 이전까지 유네스코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외교적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하였고 국내 학자 및 전문가들이 선진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제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데 있어서 소중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전란 중에서도 우리 손에 의한 유네스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활동의 중심체가 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을 위하여 각계의 저명인사들로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53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801호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설치령”을 공포하였다(1963년 4월 27일에 법률 제1335호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공포).

그리하여 1954년 1월 30일 서울대학교 강당에 각계 대표들과 저명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려 마침내 이 땅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가 탄생하게 되었다.

2012년 현재 창립한 지 58년이 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근대화과 국제사회로의 도약에 지대한 공헌을 남겼으며, 국제적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유네스코 활동을 전개하는 모범적인 국가위원회로 성장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은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임기 3년의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주요 기관·단체 선임대표자(20인 이내) 및 전문가(20인 이내), 국회의원(6인 이내),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4인)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인)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명하는 외교통상부 차관 1인,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위원중 총회에서 선출된 1인 등 총 4명이 된다. 위원회의 사업·운영의 실제 책임을 맡는 임기 4년의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기구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 총회를 대신하여 사업집행과 운영을 감독하는 집행위원회 및 사업 분야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처로 되어 있다.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총회에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위원들은 총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의결하며, 교육분과, 자연과학분과, 인문사회과학분과, 문화분과, 정보커뮤니케이션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에 배속되거나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10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집행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매년 4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에 소집되어 사업과 운영의 주요사항을 보고 받거나 심의·의결한다.

사무총장이 관장하는 사무처는 정책사업본부, 관리운영본부, 협력사업본부, 기획홍보실, 유네스코평화센터 등으로 조직되어 실제 사업활동과 위원회 운영을 수행한다.

유네스코협동학교 참여 시 지원 사항

협동학교를 통해서 교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된 도전적이고도 흥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만족감일 것이다.

- 평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는 데 직접적,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 교수자료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기술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 국제이해의 내용과 그 범위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 국내외적으로 협동학교 학교 및 교사,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국제이해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 아이디어 및 경험을 교환할 수 있다.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EIU, ESD 및 협동학교 관련 연수, 워크샵, 포럼, 교류 프로그램 등 참가 안내 및 참여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제작한 EIU/ESD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지역과 학교에서 활동하고 전국적으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



2011 한일 교사 포럼



2011 대구외고 기후정의 캠페인



2011 서울사대부고 '유치원과 함께한 우즈베크 문화교실'



2012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계센누마 지역 환영교류회

유네스코협동학교 가입

- 신청방법: 신청서를 유네스코한국위원(<http://www.unesco.or.kr>) 또는 협동학교 홈페이지(<http://asp.unesco.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공문으로 제출 (4-5월)
- 1차: 서류 심사 (5-6월) / 선발 (6월)
- 2차: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진행 (6-9월)
 - 1) 학교: 자체적인 유네스코 관련 현장(교내/지역사회) 활동
 - 2) 담당교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기관 실시 EIU/ESD 연수 이수
 - ※ 신규가입 신청학교의 담당 교사는 동 연수를 반드시 이수

- 3차: 방문 평가 (9 - 11월)
- 최종발표 (12월)
- 한국 ASPnet 가입 인증: ASPnet 인증서 및 ASPnet 현판 지급

※ 3년간의 활동성과 평가에 따라 유네스코협동학교 국가조정관(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 국제 유네스코협동학교네트워크로 가입 신청

※ 참고사항

- 가입 후 매년 말 활동보고서 및 매년 초 현황조사지(변경사항 반영) 작성/제출
- 최초 가입 승인 연도는 연간 활동보고서 제출 필요 없음
- 모든 교사가 협동학교 활동에 관여하도록 기획하고 연초 업무분장 시 이를 반영
- 최소 3명(정 1명, 부 2명)의 교사가 유네스코협동학교 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내 네트워크에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국제 네트워크 가입학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국내외적 활동 지원을 받고, 학교의 자율적인 노력에 따라 더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음



공주교대부초 유네스코 활동



문산여고 유네스코 동아리



서울사대부고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협동학교 선발 시 고려사항

서류심사

- 가입 취지 및 목적
- 유네스코협동학교 담당부서 및 담당업무(교사) 신설 · 지원 계획
- 유네스코협동학교로서 계획하는 프로젝트 추진방안과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방문 평가

- 가입목적, 취지, 가입 동기
- 유네스코 및 협동학교에 대한 이해도 (학교장 및 교사)
- 학교장 및 교직원들의 인지, 의지 및 협조 여부
 - 내부 협의 과정, 내부 가입 신청 절차
 - 향후 교내 연수 등 동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참여
- 학교장 및 담당교사 의지 및 활동 경력 (교육, 연수 등)
- 전교적인 학생 참여 방안 제시
- 유네스코반(동아리, 클럽활동) 유무
- 협동학교 관련 회의 및 EIU, ESD 관련 회의 · 행사 참여 여부 (예: ASPnet 총회, 지역협의회, 모임, 관련 연수 등)
- 홍보 계획: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 향후 활동 계획
- 부가 질문: 학교 특색사업, 외부환경, 학교중점이슈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 학교 소개 브로셔 · 요람, EIU/ESD 활동 보고서 및 계획서, 학교시설

기타고려사항: 지역별 분포도, 초중고 비율

III. 유네스코협동학교의 배경



청명고 아이티줍기 바자회



2010 제주지역 빈곤퇴치 캠페인

유네스코협동학교를 운영하는 규칙들은 유엔과 유네스코의 근본정신 및 가치와 동일하다. 이 장에서는, 유엔과 유네스코의 기본 정신들이 유네스코협동학교(ASPnet) 사업의 배경과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는지 알아보려 하며, 담당교사들은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협동학교 활동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유엔 가입국들은 2000년, 처음으로 각국 수장들이 만나 모든 방향에서 평화와 빈곤, 안보와 개발, 인권, 기본적인 자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하였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는 다음의 목표들을 2015년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

- 목표 1.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 목표 4. 유아 사망률 감소
- 목표 5. 산모건강의 증진
- 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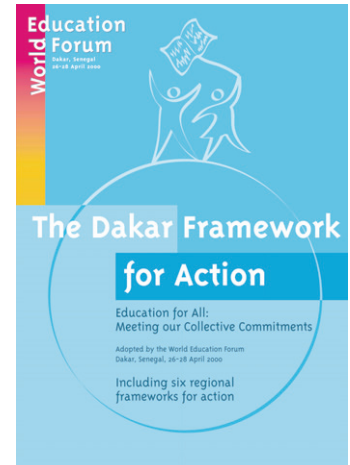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2번째 목표, 즉 모두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All)은 유네스코의 우선순위가기도 한 다카르 행동 계획(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네스코협동학교는 특히 '모두를 위한 교육' 지침 중 3번과 6번째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두를 위한 교육: 다카르 행동 계획의 6가지 목표

1.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와 교육의 확대 및 향상
2.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양질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 제공
3. 청소년 및 청년의 학습과 생활 능력 습득 증진
4. 2015년까지 성인 문맹률을 50% 이하로 감소
5. 2005년까지 성불평등을 없애고, 2015년까지 교육에서 양성평등 달성
6. 교육의 질 향상



다카르 행동 계획

모든 협동학교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UNDESD, 2005-2014)

유네스코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선도기관이다. 유네스코는 모든 교육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교육자, 학생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협동학교는 1970년대부터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1989년에 시작된 '발틱해 프로젝트(Baltic Sea Project)'이다. 그 외에도 많은 협동학교가 물, 지속가능 소비, 사막화, 습지 등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활동하고 있다.

<http://www.unesco.org/education/desd>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로고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10년 (2001-2010)

유네스코는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를 위한 비폭력 10년(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교육 내용 구성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 중심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07)의 첫 단계 이행을 돕고 있다. 관련 활동을 주도하여 평화를 증진하는 데 기여한 협동학교들은 특별히 Peace Pillar Award를 수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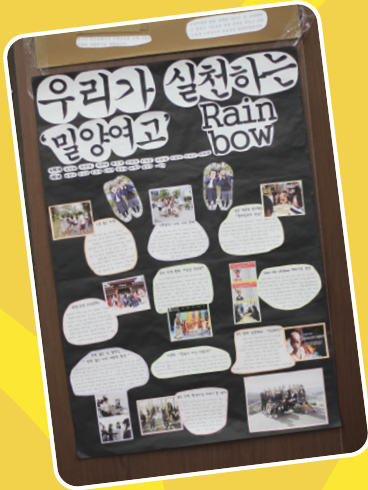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교육(EFA) 행동 주간' 참여하기

협동학교는 여아(女兒) 또는 미취학 아동 교육 등을 주제로 '세계 교육 캠페인'에서 주관하는 연간 EFA 행동 주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전 세계 협동학교 학생들은 EFA 행동 주간에 지역 설문조사, 지역 대표자들과의 면담, 행사 주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의회나 교육부, 국가 원수를 방문하기도 한다.



예멘의 여성들이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다.

IV. 학습주제 및 기함 프로젝트



밀양여고 유네스코 활동

유네스코협동학교(ASPnet)는 협동학교의 4가지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국제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권장한다. 이 활동들은 학교나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기함 프로젝트(flagship project)나 캠페인 참여가 될 수도 있고 교수 자료 시험이 될 수도 있다.

기함 프로젝트란, 국가조정관이나 지역담당관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지역적·국제적 프로젝트이다. 지정된 범위와 기간 동안에 교사연수, 교수자료 제작, 우수사례 보급, 교육과정 반영 등을 통해 정보와 활동 사례를 알리고 확산시킬 수 있다.

캠페인은, 협동학교의 학습주제 중 한 가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학교에 관련 문서와 자료가 제공된다.

실험적 활동은, 협동학교가 혁신적인 활동 방법 등의 교수법과 학습 자료를 시험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자료들은 다양한 지역의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어 협동학교 '증식효과(multiplier effect)' 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읽을 거리:

범지구적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기아의 실상

소는 배를 채우고, 사람은 굶는다?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곡물의 4분의 1을 부유한 나라의 소들이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영양과잉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거꾸로 다른 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죽고 있다. 소들이 먹어치우는 곡물이 연간 50만 톤에 달한다.

기아에 관해 가르치지 않는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기아에 대해 가르치는 학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기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수단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뜬구름 잡는 식의 정서적인 대응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부적이고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얼마 전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한비아 씨가 네티즌들에게 한 '굶는 아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라는 물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량생산을 늘려 굶주림을 없애야 한다고 답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아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2007)에서 부분 발췌]

1. 범지구적 문제와 국제기구의 역할

(World Concerns and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협동학교의 활동은 평화, 빈곤, 기아, HIV/AIDS, 인종 차별, 문맹, 여성 문제, 아동 노동과 지속가능한 소비 등 유네스코와 유엔의 우선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세계적 현안문제를 택하여 각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측면을 조사해 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유엔 및 각 분야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현재, 미래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기념일과 기념해를 기점으로 학생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의 문제점들을 돌아볼 수 있으며, 국제기구를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



유엔에서 선포한 세계 기념일

♣ 생각해보기

세계의 빈부 격차는 왜 자꾸 늘어만 갈까?

지구는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의 음식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도 3초마다 아이가 굶어 죽는다.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사람들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3명 중 1명은 단순한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한다. 현재 가난한 사람들의 반 이상은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농부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며,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 윤택해져 가는 것일까?

[참고자료: 유엔 www.un.org, 유네스코 본부 www.unesco.org]

나라간의 전쟁은 왜 자꾸 일어날까?

UN은 제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한 참상을 막겠다는 이념으로 출범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전쟁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게다가 전에는 전쟁의 대부분이 나라간 분쟁이었으나 이제는 민족간, 정치적 이념 간의 대립도 두드러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한번의 발사로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핵병기가 발달했고 지구를 수 차례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소통으로 상생하기보다는 폭력으로 상대방을 누리겠다는 전쟁은 왜 멈출 수 없는 걸까?

[참고자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www.un.org/Docs/sc/]

대외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는 무조건 좋은 것일까?

대외원조(ODA)란, 국가가 타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 예산에서 차출하는 비용을 뜻한다.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적게는 나라 예산의 0.1%에서 1%정도를 대외원조에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수혜국에서 수원국이 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원조를 계속 받거나, 오히려 국가 사정이 나빠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외원조가 국가의 자립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대외원조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개도국을 돕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활동해보기

- 100년 후의 지구 가상 기사 써보기
- <워터월드>,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등 영화 함께 보고 토론하기
- 국제기구의 효율성과 효과에 대해서 장·단점으로 나누어 토론하기
- 국제기구가 생겨난 배경과 활동 조사
- 세계 기념일(부록 3. 참조)에 따른 다양한 행사 마련해보기

미국의 분담금 납부 유예에 대한 유네스코 사무총장 성명서

2011년 10월 31일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네스코 가입이 결정되자 미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각국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2011년 11월 2일 미국의 분담금 납부 의무 유예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위축 우려와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와 사회 변동의 시기에 전지구적 안정과 민주주의 가치를 높이려는 유네스코의 소중한

노력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해 관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네스코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른 분담금과 기타 재정적 지원의 철회는 유네스코의 효과적인 활동을 약화시키고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건설하려는 유네스코의 역량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미국의 재정 지원은 이라크, 튀니지, 이집트의 자유롭고 경쟁적인 언론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분쟁지역에서의 유네스코 문해 프로그램은 이 지역 사람들이 극단적 폭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유네스코는 언론인들이 선거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사명을 띤 유엔 전문기구로서 전 세계 언론인의 편에 서서 테러와 살해 위협에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 초 워싱턴에서 저는 현재 유배돼 있는 이란의 저명 언론인 아마드 제이다바디에게 유네스코 언론자유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또한 홀로코스트 교육을 전세계적으로 진작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유엔의 유일한 전문기구입니다. 유네스코는 홀로코스트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금을 활용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저는 주로 아랍과 이슬람 국가의 정치 종교지도자 150여명과 함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의 역사적 방문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보스니아의 이슬람 대학자인 무스타파 체릭 박사가 “우리는 이슬람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의 사원과 교회에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과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해양 쓰나미 경고 시스템을 확대하는 전지구적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을 덮친 쓰나미로부터 수만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유네스코의 세서미 프로그램(Sesame Programme) 덕분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가 가능해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 과학적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와 같은 유네스코 활동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유네스코 활동 참여는 교육, 과학, 문화,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러한 미국의 이해와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와 잘 협력해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네스코는 미국이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재정 지원 문제는 결국 해결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2011년 분담금 납부 유예 발표는 당장 보편교육의 달성,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지원과 극단주의와의 싸움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정부와 의회, 미국 국민에게 이 격동의 시대에 유네스코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주요어

유엔, 국제기구, 유엔 총회, 빈곤, 빈부격차, 자원고갈, 세계화, 자원전쟁, 국제분쟁,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인구문제, 개발, NGO, 신자유주의, 원조 피로, 백인의 책무, 워싱턴 합의, 세계은행과 IMF, 지역화, 도시화, 표준화와 지역적 특성, 시민단체,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지역 연대의 형성, 인권, 환경, 공정무역

모의 유네스코 총회 (Model UNESCO Conference)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모의 유네스코 총회(약칭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논의와 실천에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고 국제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매회 총회마다 전국의 고등학생 84명이 각국 대표단과 의장단으로 참가하면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학습과 토론을 경험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키워나가고 있다.

기존의 모의 국제회의와는 달리 한국어 사용, 준비모임과 본회의의 분리 진행, 합숙, 참가비 부담 최소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협력 등이 특징이다.

2010-2011년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2012년부터는 세계화 시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청소년의 역할을 다루게 된다. 연 2회 개최하며, 후원기관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위원회, 다음세대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http://muc.unesco.or.kr>



2.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이 주제는 학생들이 발전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한다. 빈곤, 환경오염, 인구 증가 및 도시·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건강, 도덕, 양성 평등, 사회 정의, 거버넌스와 문화적 다양성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학교나 지역사회를 위한 ‘의제 21(Agenda 21)*’을 만드는 것, 고유한 지식 분야를 연구하는 것, 과도한 소비를 해결하는 것 모두 2005-2014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의제 21(Agenda 21):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유엔 행동 계획으로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되었다. 유엔과 각국 정부, 단체가 세계적·국가적·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보전 계획이다.



서울사대부여중 전통식생활반 매실청 만들기



2011 네팔 유네스코협동학교 기후변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계획을 세워 대처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은 각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쟁점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이들 쟁점은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 모두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물, 폐기물 문제와 고용 및 실업, 인권, 양성평등, 평화, 안보 등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빈곤퇴치, 기업의 책무 등 경제적 쟁점도 중요하며, HIV/AIDS, 이민, 기후변화, 도시화 등은 여러 측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다.

학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인권, 평화, 통일, 환경 등과 같은 내용은 범교과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도 각 교과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범교과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는 다른 주제들도 많아 이들이 교과 내에서 중점적으로 접근되기 어려우며, 관련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

읽을 거리: 지속가능발전교육

생물 다양성과 열대림의 보존

과학자들은 지구가 생성된 이래 50억 종 이상의 생물종이 출현했고 오늘날 지구 상에는 1억-8억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지난 35억년 동안 지구상에 출현했던 종의 98%가 멸종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종의 절멸 원인으로는 첫째,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례로 빙하기는 대규모 절멸을 가져왔다. 둘째,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포식, 경쟁, 병원균의 번식으로 인한 종의 절멸이다. 이상의 원인에 의한 종의 절멸은 대부분의 경우 생태학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세 번째 원인인 서식지의 파괴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초래되었고 현재 종 절멸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종의 절멸 속도는 하루에 약 40-100여종이 멸종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현존 종의 약 30%가 멸종되었다. 종의 생성과 소멸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초기의 종 멸종 양상은 공룡 등과 같은 몇몇 국한된 종에서만 일어난 반면, 현재의 멸종 양상은 거의 모든 종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는데 이제는 이러한 식물류의 멸종도 증가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중략).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지침서, 50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로일러와 닭 공장

닭을 기르는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달걀을 얻기 위한 닭은 레이어(layer), 닭고기를 얻기 위한 닭은 브로일러(broiler)라고 부른다. 브로일러는 보통 부화된 지 8-10주 정도 된 체중이 1.5-2.0킬로그램으로 자란 식용 닭으로, 육류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싸서 주로 통닭 구입용으로 판매된다 (중략).

... 인공부화된 병아리가 태어나면 바로 병아리 감별사들이 수컷을 추려 죽여 버리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쪼아 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가위로 자르기도 한다. 부리가 잘린 병아리는 계약능가인 양계장에 맡겨져 키워진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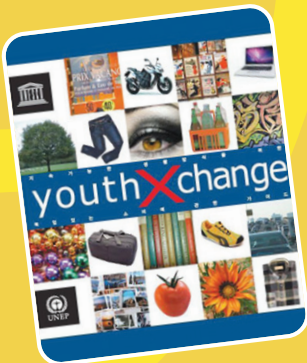
... 양계장에서는 브로일러 병아리에게 생후 첫 2주 동안은 24시간 내내 밝은

빛 아래에서 항생 물질, 합성 항균제 등이 들어 있는 사료를 실 새 없이 먹이고, 이후 6주간은 2시간마다 조명을 켜다 끄다를 반복해서 하루가 4시간이 되게 만든다. 또 병아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이로도 한다. 브로일러 닭은 알에서 부화한지 48-55일 정도가 되면 닭 공장으로 가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연간 1억 5,000만 마리 이상의 브로일러가 생산되어 소비되고 있으며, 브로일러 사육은 점점 기업화되고 있다.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 다문화 시대의 음식과 세계화, 146-147쪽,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youthXchange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과 유네스코가 공동 기획한 지속가능한 소비 프로젝트로, 교사와 관계자들이 내일의 소비자인 청소년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 홈페이지와 13개 언어로 출판된 가이드북은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문제와 윤리 문제들도 함께 다루어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선택에 대해 더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생각해보기

나무는 자연 순환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동물들은 산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호흡활동을 하면서 생명을 이어간다. 반대로, 식물은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함으로써 동물과 공생이 가능하다. 나무는 영양분의 약 10%만 땅에서, 90%는 대기에서 얻을 정도로 지구의 탄소 균형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끊임없는 벌목과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 인간사회는 나무들이 흡수할 수 없을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했고, 숲마저도 현재는 20세기 초반의 10%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연의 탄소 순환이 무너지면서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졌고, 그로 인해 동·식물들이 기존의 서식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탄소중립은 어떤 개념이며, 과연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탄소중립은 악화되어가는 지구온난화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나타난 신조어이다. 현대사회가 내뿜는 탄소의 양을 파악하고,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나무를 심어 상쇄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주요 개념이다. 선진국에서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배출되는 탄소를 따로 추가로 계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나무를 심거나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비용을 따로 부과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는 1994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발효, 국가별로 '탄소배출권'을 도입하여, 각 나라마다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을 제한하고 목표 이상의 성과가 있는 국가는 추가 달성한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개도국이 우림을 수입채출의 수단으로 착취하기 전에 보호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 활동해보기

- '친환경적인 일주일'을 실행하고 느낀 점을 적고 공유한다(아래 참조).
- 인간이 초래한 재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사진전을 꾸며본다.
- 해외/국내 환경 단체가 어떠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다양한 대체에너지를 조사하고, 이들의 미래와 영향에 대해서 토론한다.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역할을 나누고 각 역할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고 서로 토론한다(아래 예시 참조).
- 나무를 심거나 현존하고 있는 나무에 대해 기록하고 보존한다.
- 지역 관습과 전통, 특수언어나 방언을 연구하거나 지역에 오래 거주한 어른들을 만나 50-60년 전의 지역사회 생활에 대해 인터뷰하고 자료를 모아 지역의 역사서를 만들어본다.
- 응급조치, 영양, 화재예방 등의 강좌를 개설 · 운영한다.

“내 생애 가장 친환경적인 일주일”

1. 비누로 머리 감고 식초로 린스하기
(비누로 머리 감은 후에 대야에 식초 2숟가락을 넣고 머리를 행군다.)
2. 변기 물받이에 벽돌 넣기
3. 개인용 머그컵 들고 다니기
4.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기
5. 버스 20분 거리 이하의 걸어 다니기
6. 어떠한 일회용품도 쓰지 않기/일주일 동안 쓴 일회용품을 모아 보기

역할 놀이 예시

어느 지역의 강에 댐이 건설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댐이 지어질 강 근처에는 현재 5가구가 살고 있다. 학생들은 각각 군수, 정부부처 담당공무원, 생태학자, 환경단체 관계자, 기자, 판사,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한다. 각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댐 건설을 두고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한다. 학생들은 그 지역에 댐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주요어

생태계 균형, 자원 고갈, 환경단체, 불편한 진실, 생물다양성, 투발루, 탄소중립, 기후변화, 사막화, 지구온난화, 대체에너지, 도시화, 원자력

3. 평화와 인권
(Peace and Human Rights)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 7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과 같은 국제적 참고문서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키울 수 있다. 대부분의 협동학교 활동들은 비판적 사고, 시민의 책임, 다양성과 상호존중을 우선시하는 교육, 비폭력적 갈등 해결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및 활동

탄소계산기

http://carbon.forest.go.kr/tree_carbon_calculator/

탄소중립 프로그램

<http://zeroco2.kemco.or.kr/#>

사막에 내 나무 심기 캠페인

<http://www.btdesert.org>

만화 '불타는 지구'

<http://si7689.blog.me/30067039104>

녹색 연합 캠페인 종이 없는 날 (No Paper Day)

4월 4일을 A4 Free Day로 선포하고, 이후 한 달 동안 가정과 사무실에서 낭비되는 종이를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http://www.greenkorea.org/campaign/npd>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Buy Nothing Day)

지구환경의 보전과 과소비 문화에 대한 반성으로 11월 26일 하루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을 약속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다.

<http://www.greenkorea.org/campaign/bnd2002>



제주동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읽을 거리: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소외된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 행사, 자기계발 그리고 소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12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 메시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쫓겨간 날을 기념하여, 1975년 유엔에 의해 공식 지정된 '세계 여성의 날' 당시 여성들의 인권 보장을 외치던 송고한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커졌고 그 규모도 지역을 초월하여 더욱 넓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넘어 교육기회의 평등, 균등 고용 등과 같은 폭넓은 사회개선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지구 곳곳에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고통 받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소외지역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회 자체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의 여성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유네스코는 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들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를 선사함과 동시에, 성평등을 이루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전세계의 모든 여성들이 함께 밝은 세상에서 생활했으면 하는 염원에서, 우리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가까이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 생각해보기

인권이란?

일반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리'로 정의된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며,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중략)”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사회 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어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최저생계 보장제도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는 얼마이며, 그것으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가?

♣ 활동해보기

- 폭력 행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 주한외국인, 혼혈아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거나 법률을 제정해본다.
-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모의 재판을 진행해본다.
- 유명한 인권 운동가를 조사한다.
- 유명한 반인권 인물을 조사한다.
- 우리 사회에 침투해있는 인종차별주의 시각을 조사해본다.
- “살색”의 퇴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요어

양성평등, 유리천장, 세계인권선언, 관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 인권단체, 여성개발지수, 성적소수자

4. 문화 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이 사회에서 다양성을 알리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뿌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다.

사회가 점점 다문화, 다민족적 특성을 띠게 되면서 지역적·국가적 수준에서 다양한 나라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관습, 전통, 가치관 등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을 가진 학생의 부모, 원주민, 이민자, 또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 문화원 등과 접촉하여 전시회 자료 제공이나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설명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국제이해는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해외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CCAP 방글라데시 수업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지도하는 한국 교사



서울사대부여중 CCAP 수업

읽을 거리: 문화의 차이 알아보기

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유진은 낮은 학교환경에 적응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 한번은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았다. 유진은 진지하게 선생님의 꾸중을 들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러한 유진의 태도 때문에 더욱 화를 냈다. 유진은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과 선생님은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왜 유진은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을까?

문화의 차이는 때로 자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에 대해 서로 전혀 다른 해석을 낳기도 한다. 한국 문화의 경우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 학생이 취해야 할 자세는 대개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양손을 앞에 모으는 것이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표시인 것이다. 반면 미국 문화에서 선생님에게 야단을 맞는 학생은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아야 한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표시인 것이다. 미국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자신의 눈을 맞추라고 지적한 후에 야단을 친다.

앞의 사례에서 유진은 미국 학교에서의 문화대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 선생님은 유진의 행동을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한 것이다. 야단을 맞는 학생이 선생님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선생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유진은 무심결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이 되어버린 것이다.

문화를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해 본다면, 한국 문화나 미국 문화의 차이는 학생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음식의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서로 다르게 행동하게 하는 행위의 규범, 즉 관념 체계의 차이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생각해보기

전통의 창출

전통은 하나의 인간 집단이 살아감에 있어서 정체성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섞이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통은 때로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하며, 전통이 충돌,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통은 문화와 같이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창출되어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은 그 실체의 진위를 떠나 아주 오래 전부터 변치 않는 형태로 내려왔다는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한 인위적인 발명품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전통을 이야기할 때, 전통은 늘 변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한다.

스코틀랜드의 전통 의상으로 알려져 있는 킬트(Kilt). 실제로는 스코틀랜드의 전통문화가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기도 했다.

-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21쪽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는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현재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인 약 1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의 급격히 늘어난 외국 노동자의 입국과 늘어나는 국제결혼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세계 속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반면, 한국 속의 세계인에게는 무지하거나 그들이 '우리전통'을 얼마나 받아 들였는지에만 관심을 갖는 등 상당히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다.

문화의 개념이 다양한 이유는 그만큼 문화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어느 하나의 문화 개념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맥락에 맞는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문화를 문명과 혼동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문명은 문화의 한 부분일 뿐임으로, 문명을 기준으로 문화의 유무나 발전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21-22쪽,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 활동해보기

-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인종과 나라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지역문화센터를 방문, 지역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발표해본다.
- 각 나라별 인사말과 국가를 배워본다.
- 다른 나라의 민속 복장 그려보거나 전통 건축물의 축소형을 만들어본다.
- 세계 각국의 축제를 개최하여 각국의 전통놀이, 전통음식, 의상, 민속 무용 등과 함께 국기, 인구, 영토, 언어, 종교, 경제, 수도 등 그 나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회를 준비한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1곳을 선택하여 연구한다.
- 다른 나라 협동학교와 학생·교사 교류를 실시한다.

주요어

문화,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다민족, 다문화 전통, 국제이해,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문화적 정체성, 세계문화유산, 오리엔탈리즘, 편견

기함 프로젝트

국내 프로젝트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세계화, 지역고유문화, 경제정의 이상 7가지 주제에 대하여, 각 지역사회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 스스로 실천 가능한 학교 및 지역사회 개선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하는 프로젝트!

Why Rainbow?

7가지 색깔이 연결되어 하나의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역시 상호간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함

Rainbow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1년!!

연중: 학교 및 지역별 Rainbow 프로젝트 진행

4-5월: 프로젝트 공모 및 선발

5-6월: Rainbow 놀·이·터 (놀고, 이해하고, 터놓고 이야기하자)

6월: 청소년 세계시민여행

8월: 청소년 세계시민 공동행동

(※ UN 지정 세계 청소년의 날, 8월 12일 기념)

11월: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대전전민고 다문화가족즐거기 바자회



2006 한국-몽골 교류

해외 우수 사례

독일: 학교를 위한 들판 (A Field for the School)



학교에 기증된 약 3헥타르의 땅 (3,000m²)을 지속가능발전을 배울 수 있는 터로 전환한 사례. 기증된 땅에 유기농법으로 감자, 옥수수, 해바라기, 사탕무와 허브 및 토착 식물을 재배했다. 수확물은 수업의 연장으로 함께 요리해 먹었다. 땅이 쉬고 있는 겨울에는 각 해의 주제에 맞추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다양한 다른 프로젝트를 공부했다.

2007년의 주제는 '아프리카'였다. 학생들은 각자 다른 나라를 선택, 공정무역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더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의 한 나라와 독일과의 기후 및 동물, 재배 곡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탐구했다.

이 학습은 다양한 문제들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생물, 지리, 자연, 역사, 언어와 음악까지 방대한 양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가능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다. 연말에는 각 문제에 대해 짧은 공연을 만드는 등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했다.

브라질: 친환경 집 (An Ecological Home)

2008년 6월에서 10월 사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7학년 (12세) 학생들은 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수 있었다. 건축 자재, 전기, 화장실 등 모든 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지어져 있는 '카라쿠라' 농장 주거지를 방문했다. 농장 주인들은 왜 이러한 건물을 지었는지, 그 기술의 혁신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방문 후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연구했다.

- 친환경적인 건축 자재
- 에너지 효율성 (태양력, 자연 채광 등)
- 빗물의 재사용
- 일반 주거지를 친환경적 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 쓰레기의 재활용

연구는 책,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이뤄졌다. 프로젝트 말미에는 각 조가 친환경적인 주거지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 건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2010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 프로젝트



V. 국가조정관의 역할

2011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교육재건 협력사업



남성여고 모금 활동



서울사대부초 응원메시지 작성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과 협동학교 교사 없이는 협동학교가 존재할 수 없다. 그만큼 이들은 협동학교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가조정관은 국내 협동학교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유네스코본부의 협동학교 국제담당관과의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한다.

협동학교 국가조정관은 양 보다는 질에 주력한다. 별 성과가 없는 큰 네트워크보다는 작지만 활동적인 작은 네트워크를 선호한다. 따라서 국가조정관은 교육과정에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협동학교 교사들을 독려하고 협동학교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가조정관의 역할

협동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조정관은,

- 유네스코의 이념에 공감하고
- 교육 분야에 정통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 영어나 불어(유네스코 공식 언어)를 구사하고 가능하면 그 외 다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 비상근 또는 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 지도력을 갖고 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고
- 조직 관리와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가조정관의 역할 명시

‘협동학교 전략과 행동 계획(2004-2009)’은 국가조정관의 임무를 개정하였다. 상황에 따라 조정관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아래와 같다.

국내 협동학교 네트워크 관리

국가조정관은

- 국내 협동학교 현황과 각 학교의 담당자를 관리·보고한다.
- 최신의 국내 협동학교 활동을 학교별·프로젝트별로 정리한다.
- 협동학교가 활동을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협동학교에 새로운 교수자료를 보급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수집한다.
- 지역·국가·국제 수준의 협동학교 회의에 참가하는 교사와 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유네스코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발한다.
- 활동이 적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2년간 활동이 없는 학교는 협동학교 명단에서 제명한다.



2011 Rainbow 청소년 세계시민선언 참가 교사

협동학교 발전과 전략

국가조정관은

- 국가적·지역적·국제적으로 국내 협동학교들을 대표한다.
- 교육 당국과 고등교육기관, 문화 기구, 협회, NGO, 민간기업과 연락망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국제조정관과 함께 국내 협동학교 전략과 행동 계획 제안하고 규정한다.
- 국내 유네스코 클럽과 협회, 센터들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협동학교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한다.
- 지역 및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 협동학교 활동을 홍보한다.



청소년 인문학 콘서트: 이리나 보코바 UNESCO 사무총장, 르 클레지오 노벨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국제 협력

국가조정관은

- 다른 국가의 국가조정관과 연락하여 학교간 교류, 공동 프로젝트, 자매결연을 촉진한다.
- 해당 지역의 유네스코 지역사무소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 협동학교와 관련 있는 지역 및 국제 회의, 모임, 세미나를 확인하여 학교에 공지하고 학교장, 교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동학교와의 소통

국가조정관은

- 학교, 교장, 교사와 학생들에게 협동학교의 우선순위와 발전사항에 대해 공지한다.
- 협동학교 국제조정관과 유네스코국가위원회에 협동학교의 국내 또는 국제 활동 및 행사를 알린다.

국가 조정을 위한 제안

다음은 국가조정관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이다.

- 협동학교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와 기관의 담당자들이 모이는 연간 회의를 개최한다.
- 협동학교 담당교사 세미나를 개최한다.
-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캠프나 여름 학교를 개최하거나 축제, 전시회, 회의가 열릴 때 포럼을 실시한다.
- 협동학교와 담당교사의 공로를 높이 사고 상장, 상품, 메달 등의 상을 수여한다.



2012 한국교직원 일본초빙 프로그램

VI. 협동학교 협력 기관

각 국가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는 협동학교 국가조정관을 임명하고 국가조정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조정관은 정부, 특히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협동학교 교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그리고 협동학교의 교장은 협동학교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도울 수 있다.

정부,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는

- 교과 내용과 교수법 개정을 계획할 때 협동학교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협동학교의 혁신적이고 우수한 사례를 국가 교육 과정에 통합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결과를 정부에 알리고 교육전문간행물, 회의,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국가조정관과 유네스코국가위원회, 교육부와 국내 교육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동학교 자문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으로 협동학교에 정보를 전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 전자문서, 인터넷 등으로 학교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도울 수 있다.
- 국가조정관, 학교장,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협동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박물관이나 전시회, 기타 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
- 예산 지원으로 국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다.

협동학교의 교장은

- 유네스코 인증서를 전시하고 문서나 게시판, 체육복, 배지(badge)에 협동학교 로고를 사용하여 협동학교임을 홍보할 수 있다.
- 매년 초에 담당교사 또는 여러 교사들과 함께 협동학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계획할 수 있다.
- 연말에 학교를 공개하여 학부모, 지역사회, 협력 기관, 협회, 민간기업, 언론기관에 프로젝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 포스터를 전시하거나 도서관에 '유네스코 코너'를 특별히 마련하여 유네스코와 유엔 자료를 교내에 홍보할 수 있다.

협동학교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와 추진력이다.

교장은 교사들이 협동학교 활동을 계획·실행하고 관련 연수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협동학교 활동에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동학교에 대해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영 인평초 학습장



양산초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

VII. 수업 참고 자료

유네스코협동학교(EIU 및 ESD) 관련 저서 모음

- 더불어 사는 세상 배우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1
- 맛있는 국제이해교육 - 다문화 시대의 음식과 세계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저, 일조각, 2007
-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 세계유산 - 새천년을 향한 도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 지우리는 지구촌 시민 - 축구로 배우는 국제이해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2004
- 중학교 ESD 수업 모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 지속가능발전교육 맥락과 구조의 검토,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9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사지침서,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통영 RCE), 2008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8
-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위한 책임있는 소비에 관한 가이드(youthXchange), 유넵프레스, 2010
- 초등학교 ESD 수업 모듈,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저, 일조각, 2003

참고 웹사이트

- 유네스코협동학교 <http://asp.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http://www.unescoapceiu.org/kor/>
- 유네스코본부(영문) <http://www.unesco.org>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문화재청 <http://www.ocp.go.kr>
- 아태지역 문화체험관 <http://apceiu.edunet4u.net>
- 유네스코 세계유산 <http://www.unesco.or.kr/heritage/>
- 유넵(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http://www.unep.or.kr>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http://www.unhcr.or.kr>
-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논산대건고 유네스코 활동



한양사대부고 유네스코 활동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la21.or.kr>
- 중남미문화원 <http://www.latina.or.kr>
-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http://www.peacewomen.or.kr>
- 한국관광공사 <http://www.knto.or.kr>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분쟁사이트 <http://www.kida.re.kr/woww/>
-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 환경운동연합 <http://www.kfem.or.kr>



※ 〈2012 유네스코협동학교 길잡이〉는 2006년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협동학교 (ASPnet) 국제조정부서에서 발간한 〈UNESCO Associated Schools Guide for National Coordinators〉를 기초로, 국내 유네스코협동학교 운영 및 활동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재구성하였습니다.

부록 1. 2012년도 유네스코협동학교 가입학교 현황

시/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수	
서울특별시	경희초 서울덕의초 서울사대부초 서울신동초 서울신용산초	보성여중 서울사대부여중 선린중 신남중 영훈국제중 용강중	경기여고 등촌고 서울사대부고 한양사대부고	대원외고 상명고 숙명여고	서울교대	20
강원도	만대초 춘천교대부초		민족사관고			3
경기도	호원초	시흥은행중 조원중 청심국제중 포곡중	동탄국제고 백신고 봉일천고 수원외고 은행고 청명고	문산여고 백운고 성포고 안곡고 중산고 청심국제고		17
인천광역시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산마늘고	경인교대	4
대전광역시		대전대신중 대전어은중 대전외삼중 성덕중	대덕고 대전노은고 대전외고 충남고	대성고 대전복수고 대전전민고		11
충청남도	공주교대부초 홍남초	천안봉서중	갈산고 논산대건고 조치원외고	논산고 성남고	공주교대	9
충청북도	양산초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 곡초	진천여중	괴산고 청원고 청주외고 흥덕고	상당고 청주고 한국교원대부고		10
광주광역시	광주교대부초				광주교대	2
전라북도			군산여고 전북외고 전주영생고	전북사대부고 전주고		5
전라남도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초	성지송학중	순천매산고 순천여고	순천매산여고		6
대구광역시	경북사대부초		경북사대부고 송현여고	대구외국어고 원화여고		5
경상북도	양포초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서초	봉곡중	경북외고	경일고		6
					※ 특수학교: 안동영명학교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용연초		울산외고			2
경상남도	국산초 옥포초 인평초 진례초	경상사대부중	거창고 진주고	밀양여고 진해고		9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중 부산국제중 학산여중	금정고 남성여고 부산보건고 용인고	개성고 부산국제고 부산외고 해강고		11
제주도	제주동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중 위미중 저청중 제주제일중 조천중 함덕중	제주여자상업고 제주외고 제주중앙고	제주제일고 제주중앙여고		13
계	25개교	30개교	74개교		4개교 ※특수: 1개교	134개교

부록 2.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국제상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 (2007년 제정)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및 불국사 (1995)

해인사 장경판전 (1995)

종묘 (1995)

창덕궁 (1997)

수원 화성 (1997)

경주 역사 지구 (2000)

고창 · 화순 · 상화 고인돌 유적 (2000)

조선왕릉 (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안동 (2010)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1997)

조선왕조실록 (1997)

승정원일기 (2001)

직지심체요절 (2001)

조선왕조의궤 (2007)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팔만대장경판) (2007)

동의보감 (200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묘제례 및 제례악 (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 (2009)

남사당 (2009)

영산재 (2009)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줄타기(2011)

태권(2011)

한산모시짜기(2011)

한국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설악산 (1998)

제주도 (2002)

신안 다도해 (2009)

광릉숲 (2010)

한국의 지원으로 제정 · 시행되는 유네스코 국제상

세종대왕 문해상 (1989년, 문해교육 분야)

직지상 (2004년, 기록유산 분야)

부록 3. 세계 기념일

1월

27일 [UN]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

2월

4일 [WHO] 세계 암의 날

20일 [UN] 세계 사회정의의 날

21일 [UNESCO] 세계 모어(母語)의 날

3월

8일 [UN] 세계 여성의 날

21일 [UN]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21일 [UNESCO] 세계 시(詩)의 날

22일 [UN] 세계 물의 날

23일 [WMO] 세계 기상학의 날

24일 [WHO] 세계 결핵의 날

25일 [UN] 세계 노예무역과 대서양 노예무역 희생자 추모일

4월

2일 [UN] 세계 자폐증 계몽의 날

4일 [UN] 국제 지뢰 경고(퇴치)의 날

7일 [WHO] 세계 보건의 날

22일 [UN] 국제 지구대지의 날

23일 [UNESCO]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25일 [WHO] 세계 말라리아의 날

26일 [WIPO]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28일 [ILO] 세계 직장 내 안정 및 건강의 날

5월

3일 [UNESCO] 세계 언론 자유의 날

3일 [UNEP] 태양의 날

8-9일 [UN]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를 위한 기억과 화해의 시간

9-10일 [UN] 세계 철새의 날

15일 [UN] 세계 가정의 날

17일 [ITU] 세계 전기 통신의 날

21일 [UNESCO] 발전과 대화를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

22일 [UN] 생물 다양성의 날

29일 [UN] 유엔 평화유지군의 날

31일 [WHO] 세계 금연의 날

6월

4일 [UN] 세계 침략희생 아동의 날

5일 [UNEP] 세계 환경의 날

8일 [UN] 세계 해양의 날

12일 [ILO]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14일 [WHO] 세계 헌혈자의 날

17일 [UN]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20일 [UN] 세계 난민의 날

23일 [UN] 유엔 공공 봉사의 날

26일 [UN] 세계 약물 남용 · 불법거래와 투쟁의 날

26일 [UN] 고문 희생자를 위한 날

7월

11일 [UNFPA] 세계 인구의 날

첫째 토요일 [UN] 세계 협동 조합의 날

8월

9일 [UN] 세계 원주민의 날

12일 [UN] 세계 청소년의 날

19일 [UN] 세계 인도주의의 날

23일 [UNESCO] 세계 노예무역과 그 철폐 기념의 날

9월

8일 [UNESCO] 세계 문해의 날

10일 [WHO] 세계 자살예방의 날

15일 [UN] 세계 민주주의의 날

16일 [UN] 오존층 보호의 날

21일 [UN] 세계 평화의 날

27일 [UNWTO] 세계 관광의 날

27일 [WTO] 세계 심장의 날

28일 [WTO] 세계 광견병의 날

마지막 주 [IMO] 세계 바다의 날

10월

1일 [UN] 세계 노인의 날

2일 [UN] 세계 비폭력의 날

5일 [UNESCO] 세계 스승의 날

9일 [UPU] 세계 우편의 날

10일 [WFMH] 세계 정신건강의 날

15일 [UN] 세계 농촌지역 여성의 날

16일 [FAO] 세계 식량의 날

17일 [UN] 세계 빈곤 퇴치의 날

24일 [UN] 유엔의 날

24일 [UN] 세계 발전 정보의 날

27일 [UNESCO]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첫째 월요일 [UN] 세계 인간 정주의 날

둘째 수요일 [UN]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

11월

6일 [UN] 세계 전쟁 및 무력분쟁중의 환경파괴 방지의 날
 10일 [UNESCO]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
 14일 [WHO] 세계 당뇨병의 날
 16일 [UNESCO] 세계 관용의 날
 19일 [WHO] 세계 만성폐쇄성질환의 날
 20일 [UNICEF] 세계 어린이의 날
 20일 [UN] 아프리카 산업화의 날
 21일 [UN] 세계 텔레비전의 날
 25일 [UN]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29일 [UN] 세계 팔레스타인 민족단결의 날
 셋째 목요일 [UNESCO] 세계 철학의 날
 셋째 일요일 [UN] 세계 거리 교통사고 희생자의 날

12월

1일 [WHO] 세계 에이즈의 날
 2일 [UN]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3일 [UN] 세계 장애인의 날
 5일 [UN] 세계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날
 7일 [ICAO] 세계 민간 항공의 날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
 10일 [UN] 인권의 날
 11일 [UN] 세계 산의 날
 18일 [UN] 이민자의 날
 19일 [UN] 남-남 협력의 날
 20일 [UN] 세계 결속의 날

부록 4. 지속가능발전교육 놀이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동전 게임

그룹 크기: 4~ 36명

걸리는 시간: 30분

필요한 도구: 동전 다수, 종이와 필기구 (+칠판)

방법

1. 참가자들을 4개조로 나눈다.
2. 각 조에 16개의 동전을 배분한다.
3. 게임의 법칙을 설명한다.
 - 각 동전은 자원을 상징한다.(동전은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충전될 수 있다)
 - 각 조원은 동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 각 조원은 순서가 되면 반드시 동전을 하나 이상 가져와야 한다.
4. 각 조의 조원 한 명은 각 조원이 몇 개의 동전을 집었는지 기록한다.
5. 순서가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각 조에 몇 개의 동전이 남았는지 세어보고 남은 수와 같은 수의 동전을 더한다. 중간에 동전을 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조는 탈락한다.
6. 3-4회 정도 회전한 후에 각 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토론해 본다.

토론 거리

어떤 조가 살아남았을까?

가장 많은 동전을 가져온 사람은 어떤 전략을 사용했나?

그 사람이 많은 동전을 가져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살아남은 조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동전이 에너지원이고 각 조가 나라였다면, 어떠한 에너지 생산 전략이 사용 되어야 할까?

만일 조원(나라) 사이에 불만과 마찰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전을 가져오는 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동전 대신 사탕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2. 자갈 게임

그룹 크기: 4~ 36명

걸리는 시간: 30분

필요한 도구

붉은색 돌 다량

흰색 돌 다량 (혹은 붉은색이 아닌 돌)

조 수만큼의 불투명 주머니

방법

1. 참가자들을 4개조로 나눈다.
2. 각 조의 불투명 주머니에 흰색 돌을 16개씩 넣는다.
3. 각 조에 한 움큼씩 붉은색 돌을 배분한다.

4. 다음 시나리오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 흰색 돌은 농지 한 구획을, 붉은색 돌은 땅에 뿌려지는 농약과 성장 촉진제를 의미한다.
- 흰색 돌은 목축지 한 구획을, 붉은색 돌은 목축지의 식물 감소와 비료의 과다생산을 의미한다.
- 흰색 돌은 항공여행을 의미하고, 붉은색 돌은 비행기에 의한 대기오염을 의미한다.
- 흰색 돌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의미하고, 붉은색 돌은 공장에 의한 오염을 의미한다.

5. 게임의 법칙을 설명한다.

- 조원은 돌아가면서 1개 이상의 돌을 반드시 집어야 한다.
- 각 조원은 돌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 순서가 한 바퀴 돌아올 때마다, 각 조의 주머니 안에 흰색 돌이 몇 개 남았는지 세어보고 남은 수와 같은 흰색 돌을 더한다. 돌을 중간에 집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조는 탈락한다.

6. 첫 번째와 두 번째 바퀴: '1세대', 즉 현재를 의미한다. 흰색 돌을 집은 만큼 곧바로 같은 수의 붉은색 돌을 더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바퀴: '2세대', 즉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흰색 돌을 집은 만큼 곧바로 3배의 붉은색 돌을 더한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바퀴: '3세대', 즉 손자 세대를 의미한다. 흰색 돌을 집은 만큼 곧바로 3배의 붉은색 돌을 더한다.

토론 거리

어떤 전략을 쓴 조가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처음부터 흰색 돌을 많이 가져간 조원은 왜 그랬을까?

1-2번째 바퀴에서 많은 돌을 가져간 조원들은(현재 세대) 5-6번째 바퀴, 즉 '손자 세대' 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것은 옳은 일인가?

응용

이번에는 같은 게임을 진행하되, 주머니 없이 조원들이 돌을 서로 볼 수 있게 해서 가져오게 한다. 어떻게 게임의 결과가 변했는지 토론했는지 보자.

3. 신호등 게임

그룹 크기: 한 조당 2-9명

걸리는 시간: 30분

필요한 도구

종이, 필기구,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빨강색, 노랑색, 초록색)

방법

1 단계

각 조마다 지역 사회에(학교에) 필요한 변화들을 적는다.

각 조의 토론을 통해서 각 변화의 중요도를 1-5사이의 숫자로 표현한다.

각 조의 토론을 통해서 각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의 확보가 얼마나 가능한지 1-5사이의 숫자로 표현한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각 변화들의 평가 점수를 더해서 순차적으로 나열한다.

2단계

지역 사회에(학교에) 필요한 변화들 옆에 신호등을 그린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변화에는 초록색을, 차후에 변화하고 싶은 내용에는 노랑색을, 중요하지 않거나 변화에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경우에는 빨간색을 칠한다. 초록색이 칠해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계획을 짜보자.

노랑색이 칠해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계획을 짜보자.

변화 예시

학교 재활용 프로그램

급식 잔반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학교 주변 위험 지역에 대한 대처

유네스코협동학교 길잡이
Guide for the 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펴낸날 | 2012년 3월 30일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 전택수

등록 | 2002년 9월 13일 (제2-3598)

주소 |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문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협력사업팀

전화 | 02-6958-4157 팩스 | 02-6958-4254

전자우편 | aspnet@unesco.or.kr 홈페이지 | asp.unesco.or.kr

편집 | 서현숙, 정소여, 김명신, 차원나

디자인 | 정명진

한위간행물등록번호 ED/2012/BK/1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 유네스코 헌장 중에서